

아파트 분양 문자 폭탄·거리엔 불법 현수막 “짜증난다”

‘미분양 위기’ 분양·건설업계 무차별 광고 살포에 시민들 불만 고조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1%대 그쳐...지자체 처벌 조례제정 미흡

“#(광고) 광주 중심지 서술식 초호화 아파트 계약금 5%”“(광고) ○○동 △△아파트 34평 모델 하우스 OPEN ◎◎건설사 계약 완료”

광주 광산구에 거주 중인 남병훈(29)씨는 수일째 울리는 광고 문자에 “귀찮아 죽겠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 고지, 청약 안내, 투자 안내 등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 문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씨는 “아파트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광고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하나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또 광고가 들어온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안내문자와 태풍, 장마, 집중호우 등 재난 경보에 이어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연일 울리는 문자에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동안 사라지는 듯 했던 분양 광고 스팸문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 전역, 광주공항, 새정아울렛 등지에서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도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최근 분양·건설업계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돼 ‘미분양 위기’에 놓이면서 무차별 광고 문자 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 모집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조합원 이탈까지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지주택 특유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자재비·건축비 상승으로 ‘값이 싸다’는 메리트마저 없어져 더욱 모집이 힘들어졌다. 광고 문자

가 많아진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사전에 마케팅·홍보 문자를 받았다고 동의하지 않은 홍보 문자는 모두 불법이며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광고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은 없으며,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 업체를 조사하거나 개별적으로 수신거부 신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고 진흥원은 전했다.

불법 현수막도 급증세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시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유동광고물 단속 건수는 63만 8596건에 달한다. 이 중 64%를 차지하는 41만여건이 현수막이며, 현수막 중에서는 90% 이상이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다만 불법 현수막에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법안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고 있다.

올해 단속한 불법 유동광고물 63만여건 중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경우는 1.64%인 1만 485건 뿐이었다.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24억 3784만원에 그쳤다.

광주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을 제정해도 계도 조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다 분양 기간 동안 ‘반짝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해도 밤중에 다시 게시해버려 단속 효과가 적다고도 광주시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법하는 불법 현수막을 줄



16일 광주시 동구의 한 거리에 있는 울타리에 아파트 분양 광고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기 위해 과태료를 높이고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행정당국이 빠르게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12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과태료 기준치분(30% 증액)이 의무화됐고 과태료 하한선도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컨대 가장 흔한 3~5㎡ 현수막의 경우 기존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면 개정 이후에는 32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개정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담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6일 현재 광주시 서구, 남구, 광산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았다. 북구는 지난 2월 조례를 개정했으며 동구는 16일에서야 개정된 조례

를 공포했다.

한 기초자치단체 불법광고물 담당자는 “광고물 면적에 따라 세세하게 처벌 수위를 정하는 등 검토할 점이 많아 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계도 조치 기간에 맞춰 단기간 게시하는 등 폼수도 많아 근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원 강사 초빙 학교 보충수업 안 된다”

광주교육청, 사립고에 시정 권고

광주교육청은 한 사립고등학교가 학원 강사들을 초빙해 ‘보충수업’을 한 데 대해 “공교육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해당 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6일 “학원 강사들이 학교 보충수업에 참여하면 학생들이 해당 학원강

의를 원할 수 있는 등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측에 학원 원장과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맡기지 않도록 권고했고 학교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올 1학기부터 학원 원장(강사) 9명을 모시고 1~2학년층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8~9교시에 ‘다같이 교과보충프로그램’(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2학기에도 학생들의 보충수업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학교측은 측은 “교사들이 수요일 하루만은 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 수요일만 교사와 동일한 수당을 주고 외부 강사를 초빙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학원 강사에게 수업 1시간당 4만원을 지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능 원서접수 18일 시작...코로나 확진자 대리접수 가능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면제대상자), 수형자, 군복무자, 임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 등이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9월로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7일로 예고했던 이 사건 선고기일을 9월 1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은 전씨 측 소

송관계인 정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회고록 저자 전두환’의 책임(지위)을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해졌는데, 전씨 측 사정으로 당초 선고 기일을 목전에 둘 때까지도 승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

전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씨 자녀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법적으로 부인 이순자씨와 손자녀 10명이 전씨의 피고 지위를 승계할 수 있지만, 전씨 측은 상속 포기 절차 등을 통해 이순자씨 홀로 저자의 책임을 이어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현재까지 손자녀 3명이 상속포기 절차를 늦추면서 피고 명단에 함께 올라 와 있어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다음달 15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5일 오후 6시 마감이다. 신청자는 9월 23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1599-200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